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신수용 ·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80 · E-mail : shinsy@kmi.re.kr

## Contents

### ● 국제물류 통계

- 미국 창고가격지수, '23년 2분기 이후 보합세

###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Kombiverkehr, 로테르담과 쾰른-아이펠 토어 간 정기 철송서비스 개시

###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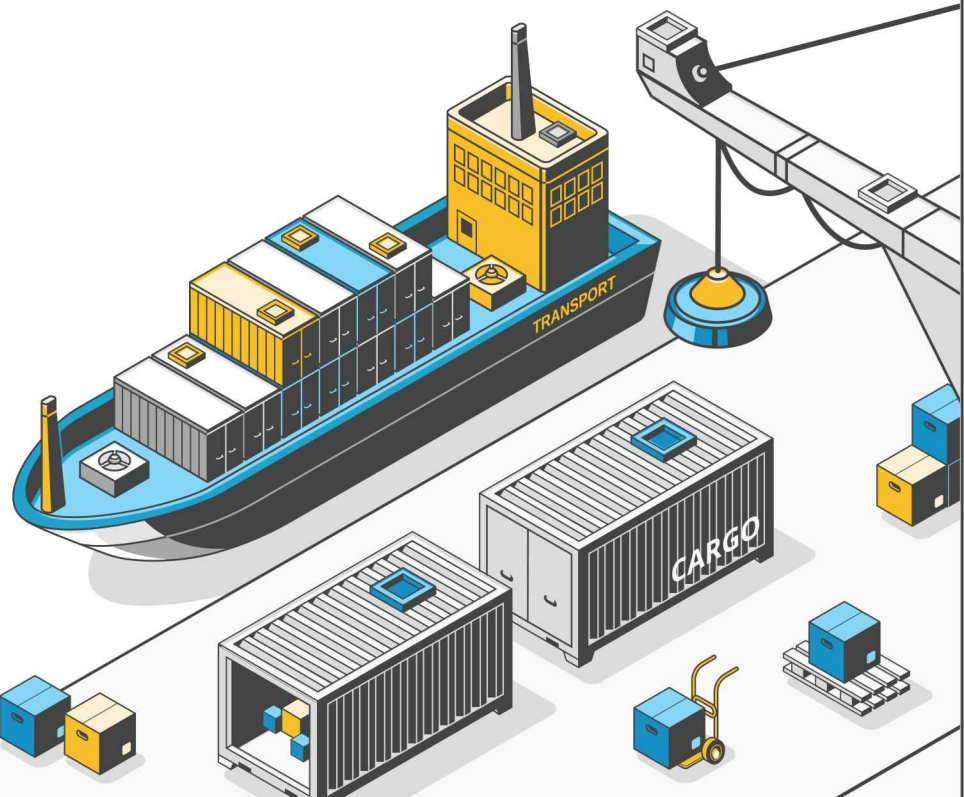
- 미 공급망 재편으로 멕시코 운송로 병목현상과 화물운전자 안전 위기 심화  
- 멕시코 최대 철도운송사, 파나마운하 대체 위한 대양횡단철도-철도페리 연계 행보 나서

### ● 아프리카 물류시장 동향

- 로비토 회랑, 아프리카 핵심광물 수출 신(新) 운송로 역할 기대

### ● 공지사항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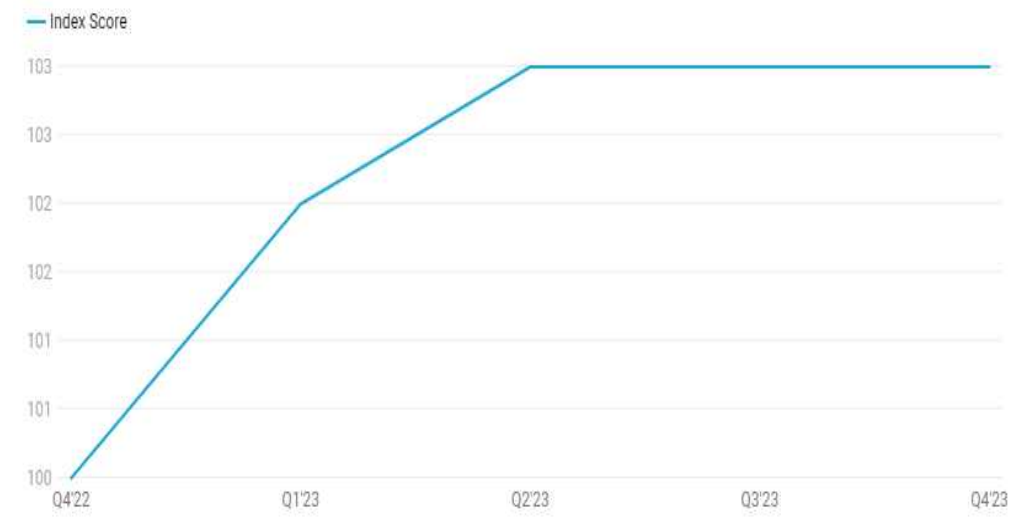


## 미국 창고가격지수, '23년 2분기 이후 보합세

➤ Warehousequote의 2024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창고가격지수(Warehouse Pricing Index)가 2023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보합세를 나타냄

- 소매 성수기의 재고 과잉에 따른 완만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 미국 전역의 창고 보관용량이 부족해 2023년 2분기부터 창고가격지수는 보합세를 보임
- 미국 노동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4분기 대비 창고보관비용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LMI에 따르면 2023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재고수준은 감소 추세이지만 창고공간 임대 비용은 계속 증가했으며, 가격은 202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창고가격지수(NW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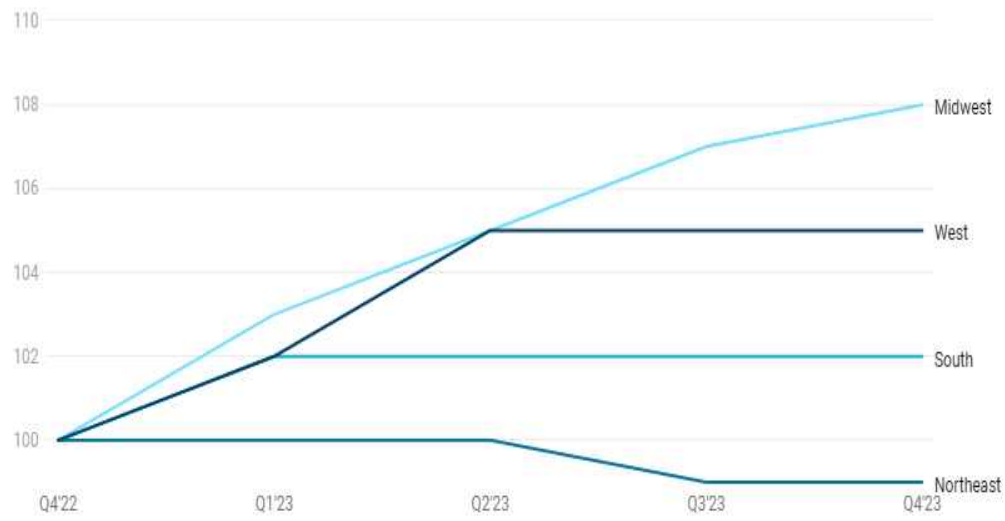


자료: warehousequote.com

➤ 미국 지역별 창고가격지수(RWPI) 변화는 지역에 따라 상이함

- 중서부지역(Illinois, Indiana, Michigan, Ohio, Wisconsin, Iowa, Kansas,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South Dakota)은 2023년 내내 103.0에서 108.0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나타냄
- 서부지역의 경우, 2023년 2분기 이후 105.0으로 지수변동이 없음
- 남부지역(Delaware, Florida, Georgia, Maryland,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Virginia, Washington DC, West Virginia, Alabama, Kentucky, Mississippi, Tennessee, Arkansas, Louisiana, Oklahoma, Texas) 역시 2023년 1분기 102.0 이후 지수변동이 없음
- 북동부 지역(Connecticut,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Rhode Island, Vermont,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는 2023년 2분기 100.0 이후 99.0으로 일부 감소했음
- Warehousequote는 홍해사태로 인한 창고수요 증가가 서부지역의 보관가격에 대한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미국 지역별 창고가격지수(RW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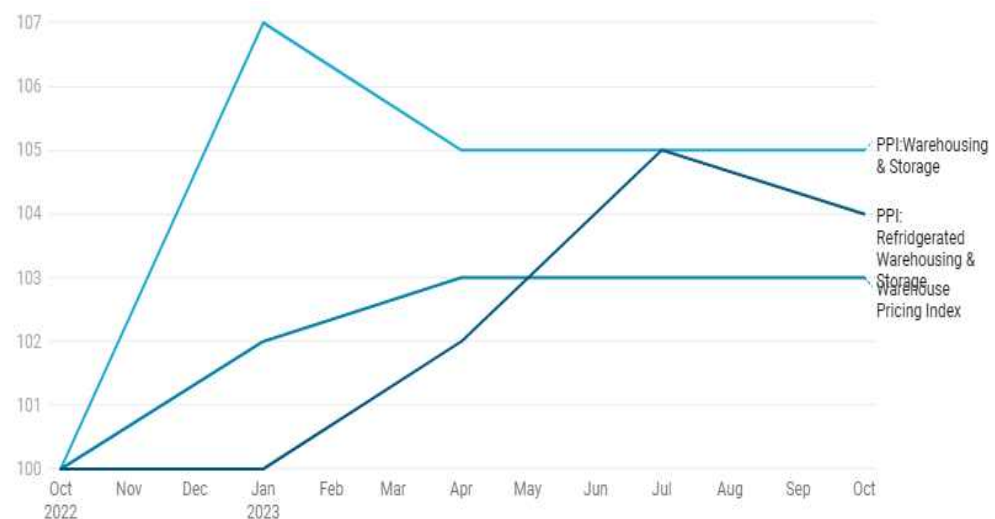


자료: warehousequote.com

- Warehousequote 24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창고 및 보관 관련 주요 소비 자물가지수 하락과 관계없이 공급망 관련 이슈로 인해 창고 보관가격지수에 대한 상승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창고 및 보관 관련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2023년 1월 정점을 나타낸 이후 4월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낸 후, 4월부터 정체기 이루어졌으며, 냉동창고 및 보관 관련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2023년 1월부터 완만히 상승해 7월 정점을 찍은 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창고 보관가격지수는 변동이 없었음
- S&P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 동부항만을 통해 일부 소비재의 높은 수입비용을 고려할 경우 파나마운하 제한 및 홍해 사태에 따른 소매업체들의 서해안 항만의 창고 수요는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소량 트럭운송 화물(Less than Truckload, 이하 LTL) 시장 전망 역시 미국 LTL 3위 업체 Yellow 운영 중단에 의해 공급과잉시장에서 공급부족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존 운영 중이었던 화물터미널들의 경매 이후 정상 가동까지 1년 이상 기간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까지 LTL 시장 내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에 의해 보관가격에 대한 압력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PPI) 및 창고가격지수(WPI)



자료: warehousequote.com

## Kombiverkehr, 로테르담과 쾰른-아이펠토어 간 정기 철송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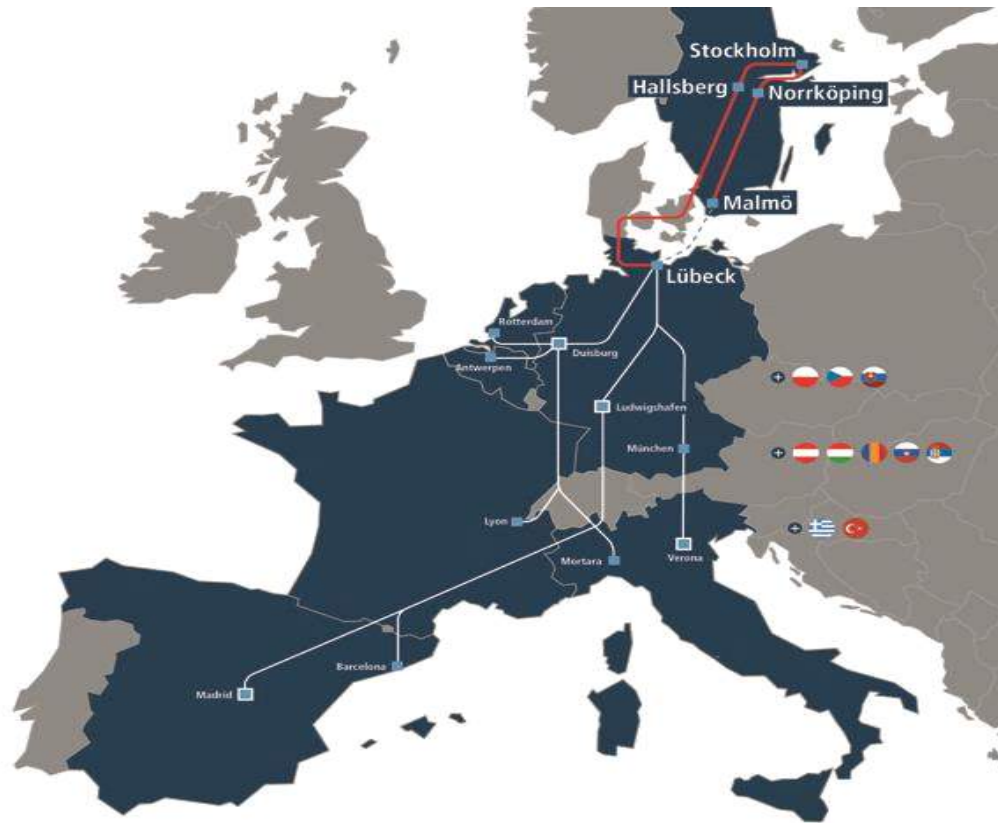
- 독일 철도 화물 운송사인 Kombiverkehr가 로테르담과 쾰른-아이펠토어(Köln-Eifeltor) 간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함

  - 본 서비스는 3월 12일부터 주 3회 왕복 운행하며, 일주일에 3회(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운영될 예정임
  - 기차는 로테르담의 발헤이븐(Waalhaven)에서 출발해 쾰른-아이펠토어에 도착하는 데 12시간 소요됨
  - P400 적재 장치를 이용한 복합운송이 가능하며, 7등급 위험화물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음
- Kombiverkehr는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Köln-Eifeltor는 독일에서 가장 큰 허브 터미널 중 하나로 독일 및 해외의 다른 목적지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독일에서는 화물을 뮌헨, 울름, 코른베스트하임, 스위스 바젤까지 운송한 후 독일 외의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그리스로 연결하며, 로테르담에서는 항만 인근 지역까지 선택적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앞서 Kombiverkehr는 스웨덴을 오가는 서비스에 대한 열차 상품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2024년 1월 3일부터 스웨덴의 할스베리(Hallsberg) 및 스톡홀름(Stockholm)까지 직행열차를 제공
  - 본 서비스는 스톡홀름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스톡홀름 노라(Rosersberg) 터미널까지 운행하며, 말뫼(Malmö) 항만에서 노르세핑(Norrköping)을 거쳐 스톡홀름까지 왕복하는 서비스도 제공
  - Kombiverkehr는 할스베리, 노르세핑 등을 추가해 스웨덴 내 터미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말뫼와 스톡홀름 사이의 열차와 뤼베크를 오가는 페리 서비스는 각 방향으로 일주일에 3회(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북쪽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남쪽으로 운행) 제공
  - 본 서비스에서는 1급 및 7급 위험물을 제외한 위험물 운송이 가능하며, 폐기물은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운송할 수 있음
- Armin Riedl Kombiverkehr KG 상무이사는 본 서비스를 통해 바르셀로나에서 스톡홀름까지 약 2,500km 거리의 복합운송을 통해 4톤 이상의 CO2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스웨덴 직행열차 서비스 및 Kombiverkehr의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자료: <https://www.kombiverkehr.de/> (검색일: 2024.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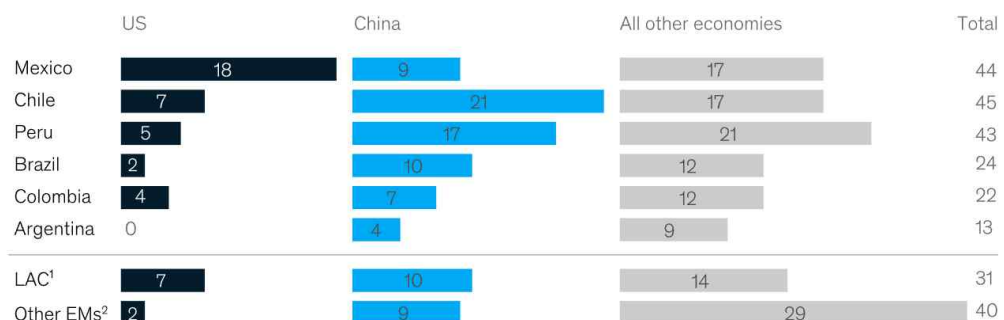
참고자료: <https://www.railfreight.com/railfreight/2024/03/06/kombiverkehr-launches-regular-service-between-rotterdam-and-cologne-eifeltor/> (검색일: 2024.03.12.), [https://www.kombiverkehr.de/en/service/customers/news/:Kombiverkehr\\_KG\\_expands\\_Sweden\\_product\\_range](https://www.kombiverkehr.de/en/service/customers/news/:Kombiverkehr_KG_expands_Sweden_product_range) (검색일: 2024.03.12.), [https://www.kombiverkehr.de/en/service/customers/news/:Kombiverkehr\\_KG\\_launches\\_new\\_Rotterdam\\_RSC\\_%E2%80%93\\_K%C3%B6ln-Eifeltor\\_v.v.\\_service](https://www.kombiverkehr.de/en/service/customers/news/:Kombiverkehr_KG_launches_new_Rotterdam_RSC_%E2%80%93_K%C3%B6ln-Eifeltor_v.v._service) (검색일: 2024.03.12.)



## 미 공급망 재편으로 멕시코 운송로 병목 현상과 화물운전자 안전 위기 심화

-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의 중심을 점점 더 멕시코로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준비가 없으면 심각한 병목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Nowports(남미 기반 물류기업)는 공급망을 본국에 더 가깝게 배치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의 수가 2023년에 전년 대비 3배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 가운데 멕시코에 공급망을 구축 및 확장하려는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언급함
  - 이는 미주 지역의 공급망 환경이 제조업의 리쇼어링 외에도 멕시코 등 남미지역 중심의 니어쇼어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이와 더불어, McKinsey는 NAFTA 이후 지금까지 남미지역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여전히 미국이지만, 최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남미지역 투자가 늘었다는 점을 강조**
  - 특히, 남미지역-중국의 교역은 2000년 대비 2021년에 약 28배 증가해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교역상대국이 되었다는 점과 그중 중국-멕시코의 교역액이 약 40배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함
  - 남미지역, 그중에서도 멕시코의 매력은 북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 역시 북미 생산품으로 인정한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관련됨
  -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2000년 대비 2021년 남미- 타 국가 간 상품교역액 실질 증가율(단위: 2021년 GDP 대비 %)



<sup>1</sup>GDP-weighted average for 23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economies. Country-level chart represents only the 6 largest economies.

<sup>2</sup>GDP-weighted average for all emerging-market and middle-income economies in Europe and Asia (IMF definition).

Note: The boundaries and names shown on maps do not imply official endorsement or acceptance by McKinsey & Company.

Totals may not sum due to rounding.

Source: UN Comtrade (2022); World Bank (2022);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자료: McKinsey & Company(2023.07.20.), The new era of Latin American economies.

-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를 통해 혹은 멕시코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미국 기업의 80%가 텍사스 주 러레이도(Laredo)를 통과하기에, 심각한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 최근 멕시코 북부의 운송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멕시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물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 언급함

➤ 이와 더불어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은 트럭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경 보안과 더불어 화물차에 대한 강도·절도 등 범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멕시코 국가안전시스템(NatiPSS)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화물 절도 사건은 폭력과 관련된 7,862건을 포함해 9,181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함
- 멕시코 화물운송협회(CANACAR)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멕시코 도로에서 화물 절도범에 의해 최소 50명의 트럭 운전사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

➤ 화물 절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저, 멕시코 운송업체연합(AMOTAC)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파업(2024.02.15.)을 실행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소 9개 고속도로 등 멕시코의 주요 교통 동맥을 봉쇄하고,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많은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함



자료: Reuters(2024.02.16.), Striking truck drivers block key Mexican highways over lawlessness.

참고자료: McKinsey & Company(2023.07.20.), The new era of Latin American economies(검색일: 2024.03.04.). <https://supplychaindigital.com/logistics/nearshoring-us-firms-face-mexico-border-bottlenecks> (검색일: 2024.03.04.). <https://www.freightwaves.com/news/borderlands-mexico-os-truckers-plan-nationwide-strike-against-cargo-theft> (검색일: 2024.03.04.),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striking-truck-drivers-block-key-mexican-highways-over-lawlessness-2024-02-15/>(검색일: 2024.03.04.)



## 멕시코 최대 철도운송사, 파나마운하대체 위한 대양횡단철도-철도페리 연계 행보 나서

- 2024년 1월 멕시코 최대 철도회사인 Grupo Mexico Transportes(GMXT)가 미국-멕시코 간 철도 페리(rail-ferry)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CG Railway(CGR)의 지분 인수에 나섬

  - 해당 철도 페리 운송노선(미국 모빌항 ↔ 멕시코 코아트사코알코스항)은 전통적인 미국 남동부와 멕시코 남동부 사이의 육상 운송로에 비해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활용됐음
  -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 모빌항과 미국 전역의 철도 물류 네트워크를 잇는 기존 방식에 더해 멕시코의 여러 항만과 멕시코 전역의 철도 물류 네트워크와 연결 확장이 가능해짐
  - 이번 GMXT의 사업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멕시코 정부가 테우안테펙 지협 대양횡단철도 회랑이 파나마운하의 대체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임
- 해당 노선은 1990년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미국-멕시코 간 무역 확대의 선제 대응 차원에서 미국 해운선사인 International Shipholding Corp.(ISH)가 신규 개발

  - 당시 인프라 부족, 통관 등의 문제로 멕시코 국경 전역에서 발생한 화물 혼잡 사태가 빈번해 ISH는 자회사인 CGR을 설립해 2001년부터 미국-멕시코 간 철도 페리 운송 서비스를 개시함
  - 현재 해당 노선은 화학 물질 및 플라스틱, 과당 및 정제 설탕, 철강, 펄프 및 종이와 같은 상품을 연간 약 10,000대 분량 운송하고 있음

### 미국-멕시코 철도 페리 노선



자료: <https://www.trains.com/trn/news-reviews/news-wire/05-gw-ferry-service> (검색일: 2024.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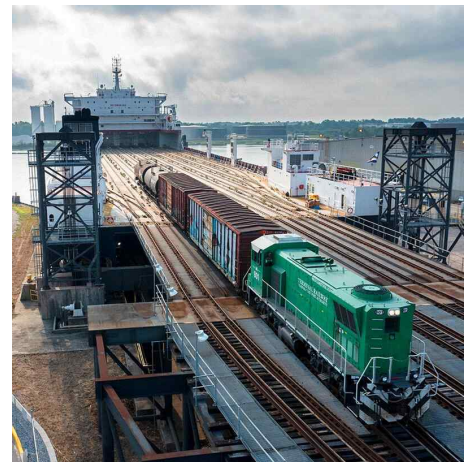
- CGR의 오랜 고객이자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 둔 Innophos는 화학 중간재 제조기업으로 운송 시간 단축, 세관 간소화 등의 장점 때문에 2001년부터 해당 철도 페리 노선을 이용

  - 당시 Innophos의 멕시코 공장은 항만 인근 약 3마일 내에 소재해 있었는데, John Honsinger 물류 담당 이사는 "멕시코 공장에서 수출용 재품을 실은 철도차량이 그날 항만에 도착한 뒤 3일 반 만에 미국에 도착함으로써 당시 전통적인 육상 철도노선보다 10일 정도 운송시간 절약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 또한 철도 페리노선을 이용함으로써 철도차량별 개별적인 통관 대신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모든 차량을 통관할 수 있어 국경 통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언급함
- 2017년에 CGR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미국 내륙물류 핵심인 철도와의 연결 확장을 고려해 Genesee & Wyoming Inc.(G&W)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 2016년에 CGR의 모기업인 ISH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후 2017년에 미국 해운 및 물류회사인 Seacor Holdings Inc.(SEACOR)가 이를 인수했고, 당시 자회사인 CGR를 미국 단거리 위주의 철도운송회사인 G&W와의 합작 투자회사(5:5)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함
  - 미국, 캐나다 등 북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 유럽의 122개 철도 노선을 소유 및 지분 확보한 G&W는 미국의 AGR, ALE, CN, CSXT, NS 및 TASD(BNSF, KCS, MSE, UP 및 기타 class 1)와 멕시코의 FSRR(FCCM/FIT에 연결, FXE, KCSM 및 TFVM) 등 광범위한 미대륙의 철도 네트워크와 연계 운송이 가능함
- 철도운송사인 G&W의 투자로 인해 CGR는 해운선사를 넘어 본격적인 내륙운송능력 확보 및 북미 전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end-to-end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이와 함께 화주들에게 높은 서비스 신뢰성을 제공하고, 높은 수송 능력 확보를 위해 신규 철도 페리 선박 2척(Cherokee, Mayan)을 발주하는 등 신규 투자를 확대함

## CGR의 신규 발주 선박과 모빌함 철도페리 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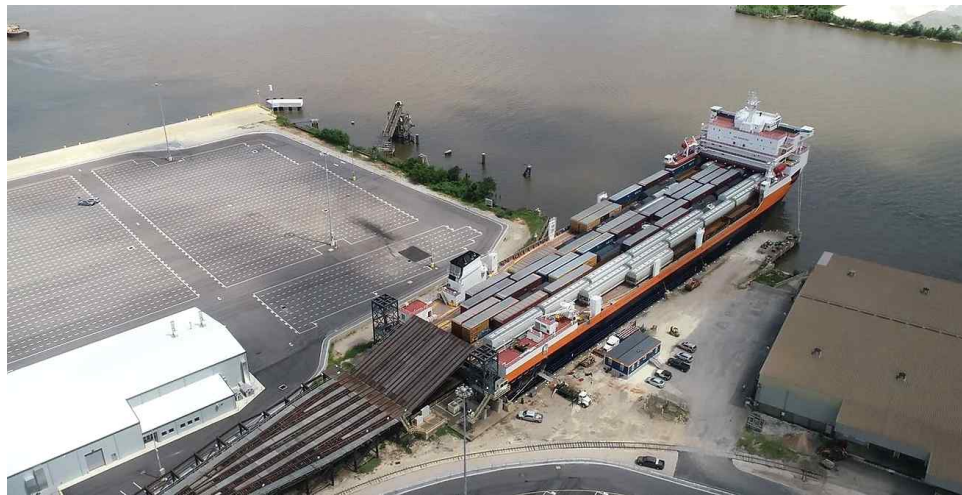


자료: <https://www.cgrailway.co/> (검색일: 2024.03.04.)

➤ CG Railway가 새로 투입한 *Cherokee*호는 2021년 9월 12일에 첫 운항을 개시한 이후 모빌항 ↔ 코아트사코알코스항 간 주1항차 서비스를 제공

- *Cherokee*호는 길이가 590피트이며 최대 135대의 철도차량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CGR이 기존 운항하던 철도 페리선에 비해 항해당 적재능력이 17% 큼
- 이를 통해 최근 미국-멕시코 간 운송로 병목현상을 겨냥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혼잡과 지연을 우회할 수 있으며, 대부분 화물이 도착 전에 사전 통관되므로 통관 절차가 쉽고 빠르다는 점을 장점으로 강조함
- 이와 더불어 멕시코만에서 이동하는 동안 화물 절도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과 1,912 마일(왕복) 동안 열차 미운행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철도 페리 노선의 경쟁력으로 제시함

*Cherokee*호



자료: <https://www.cgrailway.co/> (검색일: 2024.03.04.)

➤ GMXT의 CGR 인수는 멕시코 북부 중심에서 벗어나 남동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테우안테펙 지협 관련 대양횡단철도(Interoceanic Railway) 구상을 지원

- 이번 인수를 통해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남부지역을 미국 중서부 및 동부 시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관문으로 홍보하며, 북부에 비해 낙후된 남동부지역의 인프라 구축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 및 신뢰감을 제공함
- 대양횡단철도는 총연장 약 300km의 멕시코만 인근의 중심도시인 코아트사코알코스(Coatzacoalcas)와 테우안테펙(Tehuantepec)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인접한 항만도시인 살리나크루즈(Salina Cruz)를 연결함

➤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멕시코의 대양횡단철도가 운행 개시(2023. 12. 22.)했고, 접안시설과 하역설비 등 인프라를 갖춘다면 파나마 운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

- 멕시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대양횡단철도 파나마 운하를 전면 대체할 수 없으며, 파나마 운하를 지나던 화물 중 극히 일부만 멕시코를 경유할 것으로 전망

- 이와 더불어 글로벌 물류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대양횡단열차를 통해 운송된 컨테이너가 멕시코 내 항만에서 다시 선박에 싣는 데 드는 추가 비용과 시간 등 신뢰성 제공이 먼저라고 언급함
- 머스크의 한 관계자는 "(테우안테펙 횡단열차를 이용할) 멕시코 남부의 제조업 단지에 투자하는 고객사들이 많아져야만 해당 철도 연결에 대한 수요가 매력적으로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대양횡단철도 예정 노선 및 동 노선의 멕시코 내 위치



자료: 한국경제(2023.10.18.), "미국 가려면 우리를 거쳐라"...멕시코의 통큰 결단

참고자료: 한국경제(2023.10.18.), "미국 가려면 우리를 거쳐라"...멕시코의 통큰 결단 <https://www.marinelog.com/passenger/ferries/new-rail-ferries-completes-first-u-s-mexico-round-trip> (검색일: 2024.03.04.), <https://www.progressiverailroading.com/intermodal/article/CG-Railway-aims-to-take-its-NAFTA-trade-driven-rail-ferries-service-to-the-next-level-23274> (검색일: 2024.03.04.),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mid=a30500000000&systemcode=06&brdctNsNo=359606> (검색일: 2024.03.04.), <https://www.globenewswire.com/en/news-release/2017/09/05/1107547/0/en/SEACOR-and-Genesee-Wyoming-Form-Joint-Venture-to-Own-and-Operate-Rail-Ferry-Service-CG-Railway-Between-the-U-S-and-Mexico.html> (검색일: 2024.03.04.), <https://www.globenewswire.com/en/news-release/2017/09/05/1107547/0/en/SEACOR-and-Genesee-Wyoming-Form-Joint-Venture-to-Own-and-Operate-Rail-Ferry-Service-CG-Railway-Between-the-U-S-and-Mexico.html> (검색일: 2024.03.04.)



## 로비토 회랑, 아프리카 핵심광물 수출 신(新) 운송로 역할 기대

### ▶ 지난 2월 8일, 잠비아 수도 루사카(Lusaka)에서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의 민간 부문 투자 포럼 개최

- 미국 외의 지역에서 개최된 첫 번째 PGI<sup>1)</sup> 투자자 포럼으로, 앙골라 로비토 항만(Port of Lobito)을 통해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까지 연결되는 로비토 회랑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포럼임
- 이 포럼에는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유럽연합, 미국, 잠비아의 기업 및 정부 인사 250여 명과 국제 투자자들이 참석
- 이번 포럼은 지난 2023년 10월 아프리카개발은행, AFC,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미국 정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로비토 회랑 개발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임
- 이 포럼에서 U.S. International DFC(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美 국제개발금융공사)는 로비토 회랑의 철도망 확장에 사용될 2억 5천만 달러(아프리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철도 투자 중 최대 규모)의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해, 로비토 회랑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음

#### 로비토 회랑의 민간 부문 투자 포럼



자료: <https://www.lobitocorridor.org>(좌), <https://zm.usembassy.gov>(우) (검색일: 2024.03.10.)

### ▶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의 노선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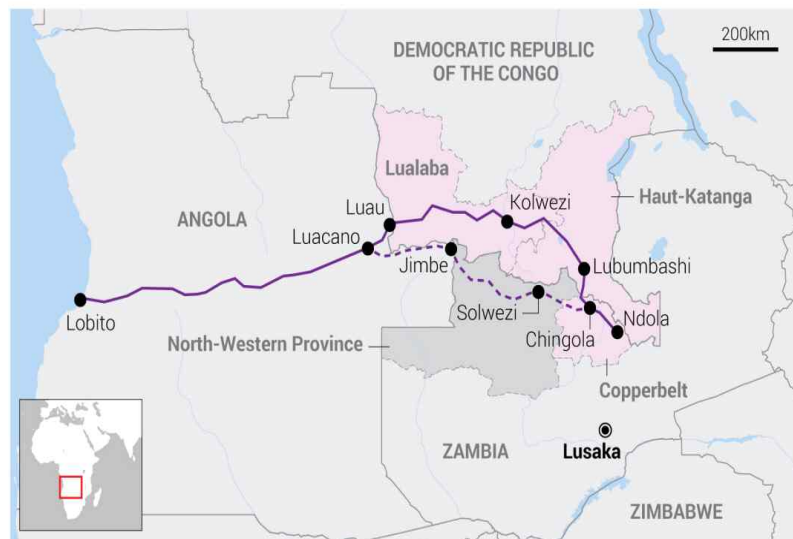
- 로비토 항만에서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경 마을인 루아우(Luau)까지 1,289km의 철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철도는 콩고민주공화국으로 400km 더 들어가 광산 마을인 콜웨지(Kolwezi)까지 이어짐
-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는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을 연결하는 벵골라 철도 노선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고 운영하기 위한 로비토 대서양 철도(LAR, Lobito Atlantic Railway)의 지속적인 노력과 아프리카 금융공사(AFC, Africa Finance Corporation)의 지원도 일조했음
-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3개국(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앙골라) 모두 전 세계로 연결되는 경제 통로가 확장되고, 대서양에서 인도양까지 연결된 개방형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

- 로비토 대서양 철도 회랑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코퍼벨트(Copper belt)<sup>2)</sup>와 앙골라의 로비토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수출 광물 운송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로비토 회랑의 철도망

— Lobito Development Corridor    ... Other proposed corridor route    Copper belt region



자료: Lobito Corridor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2024.01), 'The Lobito Corridor' report.

### 로비토 회랑의 역사

- 로비토 회랑의 대부분을 관통하는 기본 철도 인프라는 1902년 11월 28일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개발에 어려운 지형<sup>3)</sup>과 더불어,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력, 자본, 자재 부족으로 완공까지 30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어 1931년 완공됨
- 완공 후,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에서 유럽과 아메리카로 자재 및 광물을 수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1973년에는 단일 선로를 통해 33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되기도 했음
- 1975년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직후 이 지역에서 27년 동안 내전을 겪게 되었으며, 콩고민주공화국의 치안이 악화되면서 이들 지역을 잇는 철도<sup>4)</sup> 운송은 중단됨
- 이에 따라, 잠비아에서 생산된 구리는 모잠비크 베이라(Beira)로 우회해 남아공으로 운송된 후 가공되어 수출되기도 했음
- 이후 잠비아는 중국이 건설해 1976년 개통된 타자라 철도(TAZARA<sup>5)</sup> Railway)를 통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만(Dar es Salaam Port)으로 구리를 수출했음

2)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에 걸쳐 있는 구리 광산 지역

3) 해안 평야에서 높은 내륙 고원까지 가파른 오르막길을 따라 철도를 깔아야 하는 어려움

4) 뱅겔라 철도(Benguela Railway)

5) Tanzania-Zambia Railway Authority,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과 잠비아의 카피리움포시(Kapiri Mposhi)를 잇는 동아프리카 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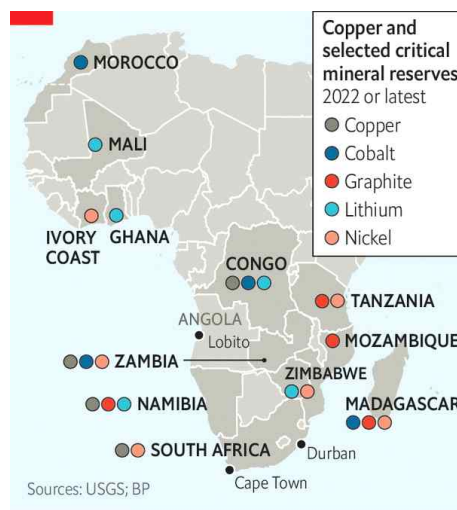


- 2001년 11월, 뱅골라 철도의 99년 양허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와 모든 철도 인프라가 앙골라 정부에 귀속되었으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내전의 결과로 앙골라 해안을 따라 34km의 철도만 운행되었음
-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국이 2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해당 구간의 철도를 대대적으로 보수했으나,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음
- 2022년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컨소시엄이 중국의 입찰을 제치고 철도 개발권을 획득했고, 2023년 5월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G7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따라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가 본격화됨
- 2023년 7월, 로비토 대서양 철도 회사(Lobito Atlantic Railway, LAR)<sup>6)</sup>는 앙골라에 4억 5,500만 달러, 콩고민주공화국에 1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0년 양허권을 확보했음

#### ▶ 로비토 회랑의 중요성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첨단 방위 시스템과 클린 에너지 기술을 뒷받침하는 핵심광물의 수요가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의 국가별 핵심광물 분포 현황



The Economist

자료: <https://www.economist.com> (2024.03.09.)

- 전 세계의 최첨단 무기, 전기 자동차(EV) 배터리, 풍력 터빈은 모두 희토류, 코발트,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광물 자원(코발트, 구리, 리튬 등)이 풍부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잠비아는 중요한 자원 공급지임
-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로 추정)으로 알려져 있고, 앙골라 역시, 막대한 석유 매장량으로 유명하며, 이에 더해 크롬, 코발트, 흑연, 납, 리튬, 니켈 등 세계에서

6) Trafigura(싱가포르), Moto-Engil(포르투갈), Vecturis SA(벨기에)가 각각 49.5%, 49.5%, 1%로 참여하는 합작투자형태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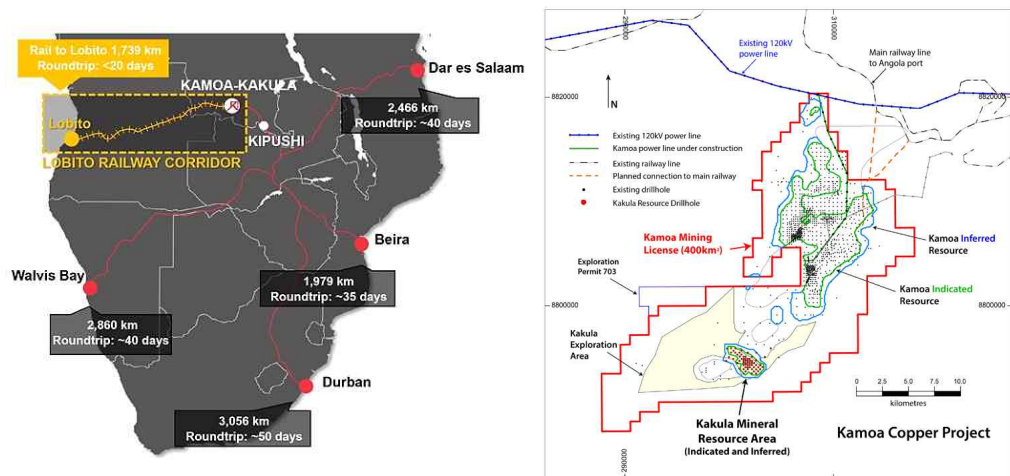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51개 광물 중 26개 광물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핵심광물을 운송할 때 이들 국가를 연결해 수출 항만까지 이어주는 로비토 회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이에 미국과 중국은 아프리카 광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음.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통해 이미 아프리카 대륙에 인프라 개발을 시작해 코발트, 리튬 및 기타 여러 필수 금속과 광물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sup>7)</sup>

#### ▶ 로비토 회랑의 물류비 감소 효과

- 캐나다 광산업체인 아이반호우 마인스(Ivanhoe Mines)는 카모아-카쿨라(Kamoa-Kakula) 구리 광산에서 도로 인프라를 통해 Durban(남아프리카공화국), Dar es Salaam(탄자니아), Beira(모잠비크), Walvis Bay(나미비아)의 항만으로 구리를 운송했음
- 그러나, 2023년 말 로비토 회랑을 통해 카모아-카쿨라(Kamoa-Kakula)에서 앙골라 항만까지 구리를 운송하는데 성공했음<sup>8)</sup>
- 로비토 회랑을 이용한 운송로는 기존 타 경로의 2/3로 단축되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 로비토 회랑의 경쟁 노선(좌) 및 Kamoa-Kakula Project map(우)



자료: <https://www.lobitocorridor.org/>(좌); <https://www.ivanhoemines.com/>(우) (2024.03.09.)

- ▶ 핵심광물을 비롯해 아프리카 중부지역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을 공급받기 위해 EU와 미국은 로비토 회랑과 로비토 항만을 통해 대서양 항로를, 중국은 타자라 철도 노선과 다르에스살람 항만을 통해 인도양 항로를 각각 활용하게 됨

7) 콩고민주공화국 구리 광산의 80%가 중국 소유이며,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인 코발트의 76%를 포함해 콩고민주공화국 희토류 광물의 85%를 채굴하고 있음  
8) 카모아-카쿨라 광산에서 채굴된 약 1,110톤의 구리는 콜웨지(Kolwezi)의 임팔라 터미널 창고에서 철도 화차에 적재되어 2023년 12월 23일 로비토 회랑을 따라 서쪽으로 출발, 8일 후인 2023년 12월 31일에 로비토 항만에 도착함

-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코발트, 리튬 및 다양한 금속 및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이미 훨씬 앞서 있으며, 중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원자재 및 광물의 효율적 운송을 위해 잠비아 중부부터 인도양의 다르에스살람 항만까지 이어지는 타자라 철도 노선을 인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로비토 회랑에 대한 기대 및 전망

- 향후 EU와 미국의 중요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로비토 회랑의 철도 노선 보수 완료 및 운영이 본격화된 후, 회랑을 이용하는 물동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콩고민주공화국의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 회랑은 해당 지역을 국제 시장과 연결하는 중요한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며, 동시에 다양한 부문에 걸친 민간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